

# 공간디자인에 있어 시적 의미작용에 대한 해석가능성 연구

- 실내디자인 구성요소의 의미 구성적 변환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 of Poetical Signification in Space Design

- Focus on the Semantics generative conversion of construction Factors in Interior Design -

**Author** 김은지 Kim, Eun-Ji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강사, 공학박사

**Abstract** This research understands semantics-system in contemporary space design as a poetic form. It provides that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 of space and makes to escape from insipid formal logic of compulsion uniform meaning. In order to unfold this argument, poetic semantics system has to be revealed using conversion of articulation factors in text of space(semantics and syntax). First of all, after setting up the articulation system of space language, we have to understand the conversion of articulation factors that generate a new grammar breaking up the rule of old syntax. And the various expression of form in Contemporary Space design focuses on a poetic expression, that is, the abstraction system fused by space factors(conversion of articulation system). In this method of research to recognize the subject of space in architecture, the importance of interpretation has to be highlighted, as the importance of language is emphasized that intermediates between object and interpretation. The reason to recognize Contemporary space design as a text is that it is a gathering of symbol as a object of interpretation and a mediator.

The important issu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how and what to transmit by poetic semantics system in contemporary space design. It brings about a poetic problem what it intends to becomes(the problem of meaning operation) in a narrow sense and a interpretational problem what it intends to do(the problem of communication). When we define interpretation the technique of defining a text, it involves the premise of inevitableness of multiple understanding, or the possibility to interpret variously. In the end the ambiguity of poetic language and the infinity of meaning process as the meaning expansion system in contemporary space design is the flexible measure to solve the self-criticism.

**Keywords** 시적 의미형식, 해석, 분절체계, 의미 확장, 모호성, 무한성  
Poetic semantics system, Interpretation, Articulation system, Meaning expansion, Ambiguity, Infinit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예술작품에 있어서 '해석'이라는 문제는 인간에게 무한히 확장된 의미로 다가온다. 따라서 현대 실내디자인의 특성을 '시적'이라는 표현으로 공간구성의 체계를 파악하려는 것은 모든 시대에는 저마다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시적 의미의 해석 가능성이 어떤 불변의 진리나 고정된 의미를 부정하는, 즉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창조하려는 현대사회의 미적 사고체계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여기서 시적 의미작용이라는 개념은 의미나 기능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실내공간에서 형식이 과감히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변형은 실내 구성요소들의 변환을 가리키며 그것은 의미의 무한성 혹은 모호성, 즉 시적 의미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모호성은 지시대상 자체가 관습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기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해석의 여지도 무한히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모호성과 무한성이라는 의미는 시적 언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호작용으로서 시어(詩語)의 의미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의미작용을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는 시어와 공간 이 두 가지 영역이 모든 지시대상에 대한 의미나 기능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공통된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시적 의미작용은 그것의 표상적 실체가 모호함과 불확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시적 의미체계가 실내 구성 요소의 구성적 변환에 따른 결합구조로 나타남을 규명하고 그것이 시적 언어의 표현으로서 무한한 의미작용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인 언어기호를 왜곡시켜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나게 하는 시적 표현처럼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공간적 구성요소를 변환시켜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키는 시적 언어로 설정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설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공간 언어라는 분절체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그것의 의미 구성적 변환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언어학이 시적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 정의했던 <언어의 0도>라는 가설적 실체와 유사한 <공간 언어의 0도>를 설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sup>1)</sup> 이처럼 현대 실내공간의 의미체계에서 공간 언어의 0도를 벗어나려는 시적 언어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방법을 토대로 공간 디자인의 의미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 언어의 0도'를 탈피하는 공간언어의 외적 코드 채용과 공간언어의 하위코드 채용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언어의 분절 체계를 설정하여 그것의 의미 변환적 사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공간 구문론적 차원에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간언어의 분절적 요소들은 본래의 기능(구문론적 기준)이 아닌 다른 기능(또 다른 코드의 추구)으로 변환하여 서로 혼합하는데 기인한다는 생각 하에 분절적 요소들의 변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선택은 현대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시적 형식의 표현이 건축적 구성요소(분절체계)들의 변환에 의한 추상적 체계인 상징적 표현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제적 구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와 건축의 분야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실내 공간을 복잡한 의미체계(semantic system)로 읽고자 하는 것이며 구조화되고 축적된 텍스트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건축적 공간을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 파생된 일종의 표면효과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공간담론과 언어담론(discourse of language)<sup>2)</sup>이 매우 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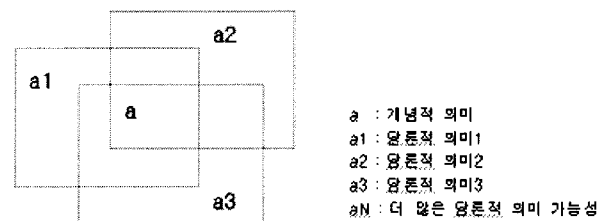
밀한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을 더 이상 기능이 아닌 형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의 구조 내에서 의미작용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대 공간디자인이 어떻게 <공간언어의 감옥><sup>3)</sup>을 탈출하는지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 2. 공간 언어의 시적 구성 체계

### 2.1. 담론체계로서의 공간적 개념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코드들의 결합 및 혼합양상은 다변화된 주체로서 고정된 경계를 벗어나 타자(他者)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공간은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표화된 기호'로서 다층위적 인식체계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담론<sup>4)</sup>의 체계와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담론은 원칙상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인간의 모든 실천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말하기, 쓰기 등의 언어 실천행위로부터 미술, 건축 등 다양한 표현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의미 실천 행위인 한에서 모두 담론인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담론에 대한 의미가 분화된 것은 의미론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은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 속에 내재된 복합적 단위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특성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상할 수 있다.<sup>5)</sup>



<그림 1> 담론의 무한한 의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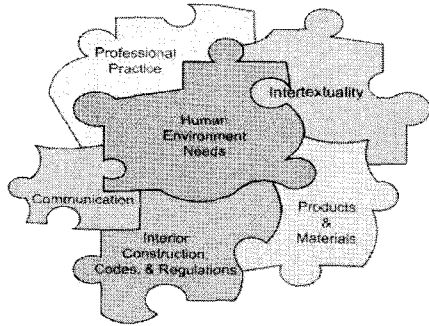
치우쳐서 전개하는 이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담론의 범위가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 3) 프레드릭 제임슨의 저서 '언어의 감옥'(1985)에서 작가가 구조주의의 체계성과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포스트구조주의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를 패러디했다. 인용의 의도는 현대 공간 디자인의 표현특성을 함축하기 위해서이다.
- 4) 담론은 영어로 discourse, 불어로는 discours라 한다. 이 말은 '앞뒤로' 움직임 또는 '이리저리' 뛰어다님을 뜻하는 라틴어 discurreere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라틴어 어원상으로 보면 담론은 일관되고 정연하게 진행되는 언어 행위라기보다는 말의 앞뒤가 약간은 뒤죽박죽이거나 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Hayden White, The Tropics of Discourse-Essays in Cultural Criticism, Baltimore ; Johns Hopkins UP. 1978, p.3
- 5) 김승용, 담론에 따른 어휘 의미 분석 모색, 연세어문학회, 제28호, 1996, p.218

1) Bruno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건축의 현대 언어, 이해성, 세진사, 1982, p.9에서 Roland Barthes의 '글쓰기의 영도(zero degree of writing)'를 참고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언어담론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대 언어학 일반에서 사용되는 이론뿐만 아니라 기호학, 사회학,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기 위함이며, 언어학적 측면에서만

<그림 1>에서 보듯이 담론적 의미는 다층위적인 관계성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담론 분석은 단위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며 이러한 분석대상에는 하나의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포함된다. 특히 예술작품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그 속에 숨겨진 언술체계나 의미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분명 현대 실내디자인의 공간적 담론을 하나의 해석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공간 개념의 담론적(확장적) 인식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현대 공간개념의 담론적 인식 구조도

이처럼 현대 공간개념의 담론체계는 공간을 하나의 텍스트로 파악할 경우, 공간 구성요소들이 텍스트의 하위 체계로서 각각의 공간들은 자체로서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영향을 미치는 패치워크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6)</sup>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공간디자인의 표현 특성은 의미의 확장이라는 성격을 원료로 패치워크처럼 짜여 존재하는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 공간개념의 담론체계(discourse system)를 밝히는 것은 실내디자인을 하나의 의미체계(semantic system)로 읽고자 하는 것이며 구조화되고 축적된 텍스트로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2.2. 실내공간과 시적 언어와의 상관성

시적 언어라는 표현은 기존의 언어를 매개로 해서 그것을 재조직함으로써 새로운 언어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공간디자인 측면에서는 구성요소의 본질적 형상과 기능을 변환하는 수법으로 나타나며 일차적 기능(건축적 기능)을 이탈하여 이차적 기능(상징적 기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적 표현이라는 것은 '문장의 본질적 차원을 넘어서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담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적 언어의 특성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

6) 패치워크(patchwork)는 중심 테마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자수와 천 조각을 무한히 하나하나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직조술이다. 이것은 중심이 없으며 기본 모티프는 단일 요소로 구성되고 크기, 형태, 색상이 서로 다른 천 조각을 이리저리 이어서 하나의 직물구조(texture)를 만들어낸다. 가장 통합적이고 각 요소의 성격을 유지한 혼합의 형태가 바로 패치워크라 할 수 있다.

이 바로 의미의 '모호성(ambiguity)<sup>7)</sup>이다. 시어(詩語)는 관련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런 속성은 시어에서의 '다의성(equivocality)'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시어 또는 한 문장의 구조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즉 하나의 시어 속에 내포될 다양한 의미가 상승효과를 가져와 시 전체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sup>8)</sup>

과거에는 시어의 애매성을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되어졌지만, 일찍이 윌리엄 엠펜(W. Empson)은 애매성이야말로 시어의 다의성을 생성해내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주장했다.<sup>9)</sup> 그는 하나의 <표면적 구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심층적 구조>가 내포되어 있음을 제시하여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 파악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시적 언어는 논리적 어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호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모순적인 역설을 통해 유기적인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다. 시적 언어의 모호성은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언어적 활용방식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은유<sup>10)</sup>, 환유<sup>11)</sup>, 아이러니<sup>12)</sup> 등의 수사적 문체(figure)들을 수용한다. 또한 수사적 문체들은 사전적 의미에만 근거하는 언어의 0도를 과감히 뛰어넘어 메시지의 의미보다는 형식에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현대 시학(詩學)에서 시도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간파(spacialiste)들은 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형을 택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통상적인 선적 배열(세로쓰기)을 비난하고 나섰으며, 급

7) '모호하다'라는 뜻은 하나의 대상 또는 그 의미에 대해 막연한, 애매한, 명확치 않은, 혼란한 등의 표현이다. 현대 과학이나 철학에서 등장하는 모호성의 개념은 규정할 수 없는 대상, 대상과 대상의 혼합 등에 의해서 본래 대상의 의미가 다변적, 다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변환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의성이란 다시 말해 대상의 의미가 구체적인 물적 존재와 그 물적 존재가 뜻하고 있는 의미 사이에 '불확정적인 모호한 상태'를 의미한다.

8) 백운복, 시의 이론과 비평, 대학사, 1997, pp.64~65

9) 엠펜은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이다. 그의 저서 '애매성의 일곱가지 형태 The Seven Types of Ambiguity, 1966'에서는 모호성을 문학비평의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인의 의도에서 비롯된 문학적 장치라고 보았다.

10) 은유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meta(beyond or over)'와 'pherein(to bring or carry)'의 합성어로부터 유래하며 전이(轉移)의 과정을 기초로 비교, 유추, 대체, 상호작용을 함축하는 유사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은유는 상호배타적인 의미들의 결합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모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Soon Peng Su, Lexical Ambiguity in Poetry, New York : Longman, pp.133~134

11) 환유는 그리스어 'metonymia'에서 유래되며 그 본래의 뜻과 기능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하나의 사실로서 감추어진 전체의 의미를 '대체(displacement)'하는 것이다. 즉 환유는 논리적 관계가 없는 대상들의 임의적 병치라는 관점에서 모호성이 내재해 있다. Lakoff &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1980, p.139

12) 아이러니는 명백한 의미와 비유적 의미 사이의 상반된 대립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현상으로서 이중적 어휘의 대립으로 정의된다. 즉 아이러니적 어휘는 문자적 의미가 대치된 자기 부정적 가치를 수반하고 아이러니를 통해 표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거나 화해될 수 없는 두 개념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아이러니는 모호성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장치이다. Soon Peng Su, 앞의 책, pp.147~149

기야는 단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모자이크 형태로 '병렬(juxtaposition)'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시에서 단어들은 어떠한 통사적 규칙도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것들의 배치 자체가 또 다른 형태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수신자는 각각의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자유롭게 연결시킬 수 있다.

Louange de Dieu<sup>13)</sup>

MAHOMET		
SOLEIL		PEUPLIER
RIMBAUE	DIEU	BEETHOVEN
ROUE		ETOILE
	JESUS	

이러한 병치적 관계에서 이질적인 부분들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전체를 이룬 구조로서의 시적 언어의 표현은 '상상력의 구조'<sup>14)</sup>와 같다. 이러한 상상력의 구조는 '유기체적 상상력의 복잡성과 풍부함'의 체계적 구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과 풍부함의 상상력이 바로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시적 의미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P. Stark의 Hudson Hotel, New York, 2000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크(P. Stark)의 작품 <그림 3>은 영역의 관습적 부분을 벗어나 타(他) 장르와의 연계로 혼성적이면서도 모호한 유니크적인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내공간의 구성적 결합과 표현방식은 a)

구조적 요소의 조소화, b)구조적 요소의 오브제화, c)공간의 순수미술 작품화, d)각종 장치에 의한 정보의 시각화로 공간디자인이 다른 장르의 표현방식과 형식을 차용하여 고유의 존재형식을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스타크의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sup>15)</sup>의 표현기법은 의미의 복잡성, 다양성, 혼란성, 애매성을 제

13) 이 시(詩)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MAHOMET (마호메트), SOLEIL(태양), PEUPLIER,(포플라), RIMBAUE(랑보), DIEU(신), BEETHOVEN(베토펜), ROUE(바퀴), ETOILE(별), JESUS(예수)

14) 영국 낭만주의 비평가인 코롤리지(S.T. Coleridge)가 '문학평전'에서 정의한 것으로 "상상력이란 상반되거나 조화되지 않은 속성들의 균형 또는 화해로 제 모습을 찾아낸다"이다. S. T. Coleridge, Biographia Literaria, 2vols, Oxford Univ Press London, 1973, p.121

15) '낯설게 하기'는 20세기 초 러시아 형식주의가 표방한 분석방법과 객관적 서술묘사의 방법 중 하나이다. 형식주의자들은 낯설게 하기를 예술의 중심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작품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진정한 미적 대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결국 형식의 파괴를 통해 독자들의 '낯설음'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것이며 일상적인 대상을 비일상적으로 만들고 낯익고 친숙한 대상과 사물에 대한 습관화된 시각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諸)특성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무한성, 또는 '불확정성', 형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국 이 같은 실내 디자인 경향은 형태와 기능적 관계의 해체, 그리고 배치된 공간의 의미마저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이런 의미층들은 형식 그 자체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며 수신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는 하나의 해석과정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적 언어의 모호성은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메시지의 의미작용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적 효과를 높여주는 의미의 다의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의성은 구성요소의 일차적 기능을 이차적 기능, 즉 상징적인 소재로 변환하는 구성적 변환으로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호성의 공간 디자인은 형태적으로 표상체계의 모호성을 수반하여 상징적 표현기법을 드러내어 수신자의 자율적인 해석을 유도하게 한다.

### 2.3. 시적 메시지로써의 의미 확장체계

어휘는 본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단순한 문맥적 변이로 포괄할 수 없을 때 의미 확장(extended meaning)이 일어난다. 여기서 의미 확장이란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공간디자인의 텍스트는 '지시적 읽기'와 '내포적 읽기'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디자인을 기호 생산적 활동으로 본다면 의미 소통적 기능은 시적 언어의 체계를 빌려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간디자인의 시적 메시지는 다소 엉뚱한 시니피에(signifié, 기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전문적인 해석이 없이도 수많은 시니피에를 창출하는 성격을 드러낸다.

현대 공간디자인은 그것이 상기시키고 외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외시가 내포(內包)로 변하는 기호학적 연쇄작용을 통해 다의적인 해석을 유도한다. 여기서 다의적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의미의 부재(不在)와도 일맥상통한다. 현대 공간디자인의 텍스트는 질서를 교란시키며 전체적인 의미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의미과정 안에 존재하는 공간 구성요소의 구성적 변환이 의미의 잉여(剩餘)로 분출되기 때문이다. 크리스테바(J. Kristeva)가 말하듯이 "주체는 의미화 과정일 뿐이며 주체는 의미화 실천으로서만 나타난다"<sup>16)</sup>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제부터 디자이너는 새로운 기능 체계를 외시할

16)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주체는 결코 '~이다(is)'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주체는 사회적·역사적, 그리고 의미화하는 활동이 펼쳐질 그러한 위치 내부에 부재할 때에만 나타난다. 주체의 과학은 없다. 주체를 지배한다는 어떤 생각도 신비적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실천의 장이다. 그곳에서 그의 언어적 과정을 통해 주체는 항상 앞선 미래에서 기대될 수 있다. Michael Payne, Reading Theory ; An Introduction to Lacan, Derrida, and Kristeva, 읽기 이론/이론 읽기, 장경렬·이소영·고갑희, 한신문화사, 1999, p.275

수 있는 시니피앙(signifiant, 기표)의 코드, 다시 말해 기존의 구성적 코드를 어느 정도 위반함으로써 새로운 코드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는 작가 자신만의 코드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은 한편의 시(詩, poem)와도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호 체계적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간디자인의 기호 생산적 의미작용

메타 언어 (기호학적 표현)	기표 3	기의 3	
함축 언어 (야차적 의미)	기표 2		기의 2
외시 언어 (일차적 의미)	기표 1	기표 1	

위의 표는 기호의 두 요소인 기표와 기의가 하나의 표현에 대해 형성하는 세 가지 층위의 의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sup>17)</sup> <표 1>에서 함축언어는 외시언어의 체계 위에서 형성되는 의미작용이며, 메타언어는 함축언어의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이다. 즉 함축언어는 외시언어의 객관적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주관적 의미를 갖는 의미작용인 것이다. 함축언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징·은유·환유 등의 시어(詩語)를 들 수 있다. 한편 메타언어는 함축언어의 표현을 분석하는 의미작용으로서 시에 쓰인 상징이나 은유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메타언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간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하나의 기호 생산적 활동이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메시지(공간디자인)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계적 구조 하에서 전달되는가에 대해 주목하기로 한다. 여기서 ‘어떻게’라는 의문사는 바로 메시지의 구성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한다. 다시 말해 ‘어떻게’라는 의문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메시지를 구성하는 기제(機制)로서 공간디자인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선 ‘표현성’으로 인식되면서 시작된다. 결국 공간디자인의 표현 특성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작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공간디자인은 기본적인 언어 기호를 왜곡시켜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게 하는 시적 표현처럼 공간의 구성요소를 변환시켜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키는 수사법(trope)<sup>18)</sup>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시적 언어의 의미체계를 현대 실내디자인의 공간적 차원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17) 이 기호체계는 바르트(R. Barthes)가 제시한 대상(object)언어-메타(meta)언어와 외시(denotation)언어-함축(connotation)언어의 체계를 통합하고 일반화한 것이다.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188재구성

18) 수사법은 코드나 기호가 어떻게 이용되어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는지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 어원은 그리스어인 Tropos에서 왔으며 전환, 방향,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3. 공간디자인에서의 시적 의미작용

#### 3.1. 시적 구성체로서 공간 언어의 분절체계

현대 공간디자인은 자체를 포함하여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뛰어넘기 위해 새로운 코드를 자체의 구성요소를 통해 만들고 그림으로써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특정지어진다. 한마디로 현대 공간디자인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내적 역학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적 요소들의 유형과 결합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분포할 수 있는 차원, 즉 공간의 분절적 차원을 규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절적 차원은 공간의 여러 구성적 차원과 유사한 개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형 기호로서 건축적 요소들은 형태·색깔·조직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그룹 $\mu$ <sup>19)</sup>는 이런 특징 이외에도 건축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건축 기호의 분절적 특징>이다. 예컨대 벽은 방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런 방은 건물의 한 요소이며 건물은 도시의 일부분을 구성 한다<sup>20)</sup>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간은 그 구성적 측면에서 분절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적 메시지가 일차적으로 형태소로 분절되고 이차적으로는 음소로 분절되듯이 하나의 공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벽, 천장, 바닥>이라는 구축적 요소들로 분절되고, 다음으로는 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 색채, 시간, 개념, 정보, 감각 등>과 같은 비구축적 요소들로 분절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언어의 이중 분절과는 달리 공간에서의 분절체계는 구축과 비구축으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다시 물질적 요소<sup>21)</sup>와 비물질적 요소<sup>22)</sup>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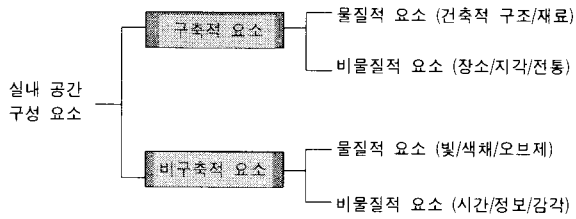
19) 그룹 $\mu$ 는 ‘일반수사학’으로 유명한 그룹으로 1992년에는 조형 기호를 비롯하여 건축의 수사학까지 다루는 「시각 기호의 논고 Traité du signe visuel」(Seuil, Paris)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그들은 은유의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룹 $\mu$ 라고 부른 것이다( $\mu$ 는 그리스어의 m이자 metaphor의 머리글자를 가리킨다).

20) 물론 그룹 $\mu$ 는 이런 단위들의 관계가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성당의 현관홀, 발코니, 정자 등은 공간을 한정짓기보다는 표시하는 단위들로 한정한다.

21) 물질은 사전적으로는 ‘물체를 이루는 실체’라는 의미로서, 질량을 갖는다는 물리적 의미와 의식에 대하여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감각을 통해서 의식에 반영되는 사물과 현상의 총체인 객관적 실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물질이 건축에 개입될 때, 그것은 건축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로서의 재료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여기에 건축가의 의식과 개념이 개입되면서 그 고유한 속성인 물질성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김낙중, 루이스 칸 건축의 구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론, 1999, pp.10~13참고

22) 비물질의 사전적 의미는 ‘실체 없는, 무형의’ 뜻을 가지며, 감각이 개념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물질 자체가 거부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공간에서는 물질적 측면에 대한 배제라는 특징으로 파악되며 주로 ‘기이한 추상’이나 ‘反형식’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형태가 있는 자연세계의 물질로부터 탈피하여 그 물질을 초월하는 이상세

<표 2> 실내 공간 구성적 요소들의 분절체계



이처럼 언어학에서의 이중 분절론에 의해 의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간에서의 다차원적인 분절은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여러 가지의 결합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코(U. Eco)가 말하듯이 언어는 이중 분절의 기호 체계인 반면에 건축은 더 많은 분절을 허용한다.<sup>23)</sup> 다시 말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수히 많은 분절을 가지며 그것의 통합방식은 종속관계, 초(超)종속관계, 배열의 관계를 개입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쓰>은 홀로 사용될 수 없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소를 '종속 형태소'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작가가 <쓰>을 '자율 형태소'로서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죽음은 쓰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문장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러한 관점을 공간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그림 4>는 분절의 체계를 불확정적 상태로 만듦으로서



<그림 4> F. Gehry의 DZ Bank, Berlin, 1999

관찰자나 사용자에게 그 영역을 재해석 또는 재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것은 분절의 개념을 뛰어넘는 경계의 모호성을 의도한 것으로서, 내부 공간 속에서 또 다른 공간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더군다

나 공간을 한정짓는 기능적 역할보다는 조형적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비정형적인 움직임의 표상(물고기라는 형태적 유추)을 삽입시킨 이중 구조화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내부로의 형태론적 공간 구성으로서 내부 및 외부 공간의 무한한 연속성이라는 의미에서 공간의 분절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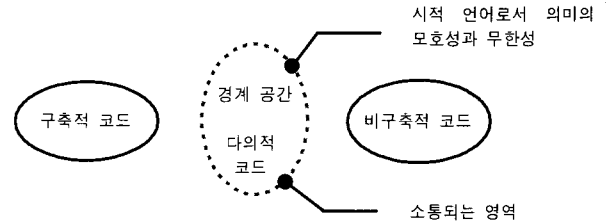
### 3.2. 시적 의미체계로서의 무한성

현대 실내공간은 의미의 새롭고 다양한 창출이라는 맥

계(Utopia)로 인식하면서 다각적으로 시도되어 온 인간의 본능이다. 양재혁, 현대 건축의 표피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론, 2004, pp.6~8참고

23) U. Eco, La Struttura assente, 기호와 현대예술, 김광현, 열린책들, 1998, p.397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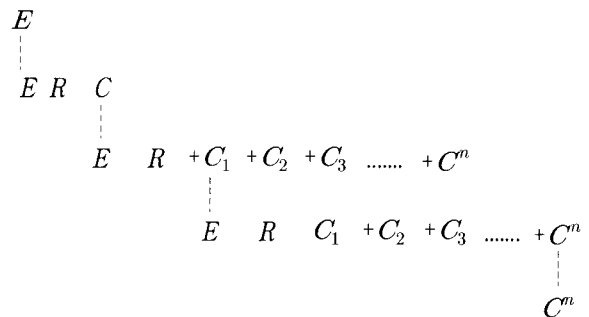
락에서 시적 의미체계라는 개념적 잣대가 작품의 평가를 위한 하나의 비평 도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의적 코드인 '모호성'이 바로 현대 공간디자인을 특징짓는 시적 요소이고 이것이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끊임없이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경계 공간으로서 시적 의미작용의 영역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적 언어의 모호성이 수사적 문채(은유, 환유, 알레고리 등)에 의해 활용되듯이 공간 언어에서는 구성적 변환에 따라 의미의 무한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한성의 의미 생산 과정은 시적 언어와 공간 언어의 기호체계가 텍스트의 여러 층위를 결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롤랑 바르트(R. Barthes)의 의미작용(signification)체계로 나타내면 <표 3>와 같다.<sup>24)</sup>

<표 3> 의미의 무한 표류를 나타내는 의미체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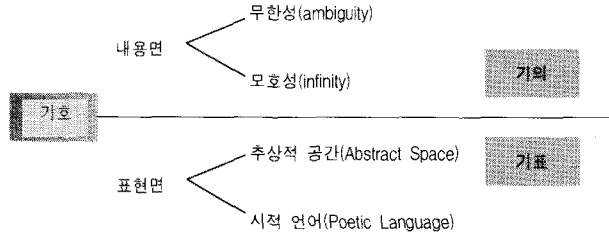


여기서 E는 표현, C는 내용, 그리고 R은 둘 사이의 관계, 즉 의미작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의미작용의 표현으로서 공간의 시적 상징화는 구성요소 상호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는 합리적·기능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이질적이고 외면적으로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을 병치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의 무한 표류적 텍스트성이 바로 현대 공간 디자인이 추구하는 시적 의미작용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공간디자인을 시적 의미체계로 읽고자 하는 것은 공간—언어의 구성적 체계가 공간 언어의 분절과 더불어 그것이 모호성과 함께 끊임없는 표류와 변화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확정적이고 완결된 의미를 갖는 형식을 부정하는

24) Vincent Jouve, La Littérature selon Roland Barthes, 롤랑바르트, 하태완, 민음사, 1994, p.141

공간디자인의 의미체계는 구성적 측면에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분절, 변형할 수 있는 시적 형식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표 4> 기호학적 측면에서 공간디자인의 시적 의미체계



쥬네트(G. Genett)는 의미작용의 개념을 변형—생성 단계에 있는 복합적인 체계 속에 조합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이 조합을 통해 의미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단편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텍스트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sup>25)</sup> 이러한 관점이 현대 공간디자인에서는 모든 표층구조가 추상적으로 발화하여 시적인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실내공간이 의미 확장적 표현으로서 구성적 변환의 조합에 따른 형태적 변형이 수사학의 시적 기능과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확장적 체계로서 구성적 변환의 결합구조를 통해 그것이 해석적 차원에서 시적 언어로서의 모호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3.3. 시적 표현으로서의 의미 구성적 변환

앞서 말한대로 현대 공간디자인은 구성요소들에 의지하는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며 시적 언어에서처럼 명확한 문법과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시적 표현처럼 공간적 구성요소(분절요소)를 변환시켜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키는 시적 의미구성체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간 언어의 분절체계를 토대로 그것의 구성적 변환, 즉 구축적 요소와 비구축적 요소들이 변용되는 사례들을 통해 그것의 시적 메시지에 대해 해석하기로 한다. 또한 이것은 메타 언어적 행위<sup>26)</sup>에 따른 의미작용이 다양한 체계의 종합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5) P. Johnson & M. Wigley,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해체주의 건축, 김능현·이일형, 전일, 1992, p.124

26) 그레고리 베이트슨(G. Bateson)은 메타언어를 일종의 미정적이고 확실치 않은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문제 내지는 주제들에 관한 대화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발화적인 차원에서의 대화만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확장해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구조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Gregory Bateso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New York ;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72, pp.1~15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언어를 '언어에 대한 언어'로 대상언어에 대한 구조화된 재해석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 (1) 구축적 요소들의 변환

구축은 행위와 실천에 관계되어 현실에 구현되는 실천의 문제로서 형태이고 구조이다. 하지만 실내공간의 구축은 구문론적 범칙에 근거하여 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범칙을 어기는 것에 주력한다.

<표 5> 구축적 요소들의 의미 구성적 변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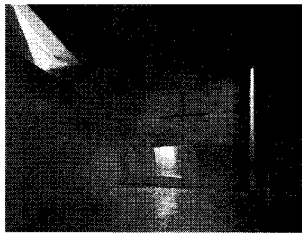
공간 언어	분절 변환	구성적 변환	
일탈과 전이의 탈코드화		Curtain Wall, 1995 & Wall Less House, 1997 / Lucerne Hotel, 2000	
			Prada Flagship Store, 2001 / Performative Leisures, 2002 & Nude Plasmic, 1999
			Ito Toyo, Sendai Mediatech, 2001 / 장운규,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 2004 / Arquitectonica, Atrium of Festival walk, 2003
구축적 요소의 변환	의미작용	구문론적 성립의 모호성으로 새로운 공간 구문론이 탄생 경계 영역을 유보하는 새로운 코드의 등장 기능적 전이로 프로그램간의 융합 / 탈영역적인 공간의 확장	
조형적 오브제화		Tod's, 2004 & Mikimoto, 2006 / Leaf Chapel, 2004	
			Beacon office / UNA Hotel & Tardini shop
의미작용		P. Stark, Mondrian Hotel, 1992 / P. Novembre, Sue Café, 1999 / 전시형, 공, 1999 / 배대용, 라이라이, 2000 공간의 조형화를 통한 형태적 변형을 초래 창조의 지각, 전통, 환경에 의한 공간적 변이작용 기능적 목적을 초월한 표식 / 대중·도상적 코드의 도입	

이러한 일탈이 바로 구성적 변환을 야기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 언어의 분절요소들을 구축적과 비구축적인 차원에서 그것의 추상적 변형체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대상언어를 메타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간 언어의 분절요소가 일차적 기능(대상언어)에서 이차적 기능(메타언어)으로 작용하는 구성적 변환은 오로지 공간의 메시지

를 소통하기 위한 임의적 혹은 우연적 결합방식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에서 분석한 구축적 요소의 구성적 변환은 '기능적 일탈과 전이의 탈코드화', 그리고 '조형적 오브제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났다. 이것은 공간 언어가 기존의 코드를 위반하거나 또는 '공간 언어의 0도'를 일탈함으로써 나름대로 새로운 문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코드를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코드, 그렇지만 디자이너 특유의 코드를 만들고자 하는 일종의 시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공간 구문론은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왔던 내·외부간의 경계, 내부 공간 간의 관계, 공간 구성요소간의 구분을 하나의 개념적 코드로 연결시킴으로써 위계, 조화, 균형의 근대적 원리를 방해하며 공간의 관계성을 새롭게 획득하게 만드는 것이다.

(2) 비구축적 요소들의 변환

공간의 인식은 비어있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축적 요소들의 채워짐으로 인해 지각되는 것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 실내 공간을 채우는 것들은 비구축적인 표현들로 대체하여 공간의 이미지를 비움으로 표현하는 경향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형적 오브제들이나 인간의 감각, 시간, 정보적 매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들로 공간에 침투하여 인간의 인식작용과 상호작용하여 경험주체의 '의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무엇'을 재생산해내어 그것들로 채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의 비구축적 구성요소는 건축적인 기능과는 아무런



<그림 6> Trahan의 Holy Rosary Catholic Church, Louisiana, 2009

관계가 없는 이른바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의 구축적 요소인 고유의 물성을 색채, 혹은 빛으로 변환시켜 유동적인 매체로서 공간의 조형성을 결정짓는다. 다시 말해 공간에 새로운 지각적 체험을 형성시키며 기존의 물리적 구축물에 대한 고정적 관념과의 비교, 혼란과 인식의 차이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은 현대 공간디자인의 담론적 인식 구조 체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서 기인한 것으로 공간적 의미론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에서 비구축적 요소들의 구성적 변환은 그 속에 내재된 복합적 단위들의 관계설정에 초점을 두고 다층위적인 관계성을

27) 세클러(E. Sekler)에 따르면 비구축적이라는 어휘는 구축이란 용어와 대조되어 사용되며 이 용어들은 건축에서 하중과 지지라는 상호 관계방식을 시각적으로 부정하느냐 혹은 표현하느냐와 관련된 예술적 대응방식으로 정의한다. Eduard F. Sekler, Josef Hoffman; The Architectural Work, Monograph and Catalogue of Wor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83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구축적 형태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 기호, 감각, 매체, 시간들은 비구축적 요소들로서 이미지화된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공간의 비구축적 요소의 구성적 변환은 미디어와 전자적 매체를 통해 물질적 이미지와 정보적 이미지가 혼재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 6> 비구축적 요소들의 의미 구성적 변환 사례

공간 언어	분절 변환	구성적 변환
추상적 공간의 비물질화		<p>Morimoto Restaurant, 2003/Hotel Li Cuncheddi/Plasma Studio, Hotel Puerta America, 2005</p>
		<p>Chichu(地中) Art Museum, 2004/Le Nouveau Casino, 2001</p>
비구축적 요소의 변환	의미 작용	<p>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화 불규칙적인 형상과 비정형성 고유의 물성을 비물질화로 전환 구문론적 위반이 아닌 상징 그 자체의 활용</p> <p>C. Moeller, On Air, 2003/David Adjaye, Nobel Peace Center, 2005/Jenny Holzer, Looming, 2004</p>
	매체적 유동화	<p>LightArchitecture, The Carafa in Roccella Palace, 2002/ Variable Data-Forms, 1998</p> <p>Muti Randolph, São Paulo Club, 2005 / Electroland, Target Interactive Breezeway, 2005/K. Dytham, Bloomberg Ioe, 2003</p>
의미 작용		<p>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공간성 매체적 기술을 이용한 인터랙션(interaction) 가시적/비가시적 구분의 모호 다중적(시간·공간·정신·감성)차원에서 공간을 경험</p>

한마디로 현대의 공간은 구축적 특성을 감소시켜 비구축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이미지와 미디어 정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영원히



구현되는 구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생성되며 소멸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이미지는 표면의 고정성과 구축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간 구분론을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매체적 유동성이 가상적 공간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경계 공간으로서 건축의 구축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요소의 분절적 차원에 있어 구성적 변형에 따른 의미작용의 난해함을 가능성으로 치환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 공간디자인을 의미 확장체계로서 시적 언어의 모호성과 의미작용의 무한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대 공간디자인 자체 비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유연한 대응책으로 내세우려는 것이다.

공간의 인식은 '텅 빈 무엇' 자체에 의함이 아니라, 공간 속에 '채워진 무엇'의 지각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공간을 구성하는 '채워진 무엇'들은 익숙히 접해왔던 물질로 이루어진 것 이외에도 비물질 혹은 비물질적인 표현들로 대체되고 있다. 이것은 실내공간을 이루는 구성적 요소들의 결합구조 체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합적인 결합구조로 이루어진 현대 공간디자인은 이를 경험하고 인지하는 경험 주체의 '의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무엇'들을 재생산하며 공간은 다시 새로운 '무엇'들로 채워진다.

지금까지 분석한 사례들을 통해 현대 실내디자인의 다(多)의미적인 공간구성의 특징은 유기적인 반응체로서 구성적 요소의 변환과 조합에 의해 창조적 공존의 내재적 관계에서 의미 확장적 체계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간요소들의 변환적 사용은 바로 시적 언어의 표현들로서 의미의 무한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첫째, 의미작용의 확장은 구성요소 간의 분절적 속성의 변환을 통해 시적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유일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구성적 변환에 의한 기표와 기의의 다층위적인 결합 때문이다. 셋째, 무한성은 내재적 구조의 공간적 특성에 의해 의미가 변용되는 것에서 파악된다.

이 모든 것은 공간을 구축하는 구성요소들의 확장적 관계(담론적 체계)들에 의해 결정불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간디자인의 관계구조의 특성에서 비롯됨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해석적으로 공간적 기호체계가 변형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실

내공간은 구성요소의 변환과 결합구조를 통해 의미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제 3의 의미(메타 언어적 의미작용)'속에서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의미가 부단히 생성되면서 폐기될 때, 의미는 다양해지고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공간디자인이 지닌 시적 의미의 무한성인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현대 공간디자인에서 요구되어지는 공간계획을 수행하는 하나의 지표로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두는 바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현대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공간 구성요소들의 변환적 사용에 따른 관계구조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다양한 결합구조를 나타내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참고문헌

1. Gregory Bateso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New York ;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72
2. Lakoff &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1980
3. Eduard F. Sekler, Josef Hoffman ; The Architectural Work, Monograph and Catalogue of Wor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4. Soon Peng Su, Lexical Ambiguity in Poetry, New York ; Longman, 1994
5. S. T. Coleridge, Biographia Literaria, 2vols, Oxford Univ Press London, 1973
6. Hayden White, The Tropics of Discourse-Essays in Cultural Criticism, Baltimore ; Johns Hopkins UP, 1978
7. Umberto Eco, La Struttura assente, 기호와 현대예술, 김광현, 열린책들, 1998
8. Michael Payne, Reading Theory ; An Introduction to Lacan, Derrida, and Kristeva, 읽기 이론/이론 읽기, 장경렬 · 이소영 · 고갑희, 한신문화사, 1999
9. P. Johnson & M. Wigley,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해체주의 건축, 김능현 · 이일형, 전일, 1992
10. Vincent Jouve, La Littérature selon Roland Barthes, 롤랑바르트, 하태완, 민음사, 1994
11. Bruno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건축의 현대 언어, 이해성, 세진사, 1982
12.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13. 백운복, 시의 이론과 비평, 태학사, 1997
14. 김낙중, 루이스 칸 건축의 구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9
15. 양재혁, 현대 건축의 표피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논문, 2004
16. 김슬옹, 담론에 따른 어휘 의미 분석 모색, 연세어문학회, 제28호, 1996

[논문접수 : 2009. 07. 31]  
 [1차 심사 : 2009. 08. 21]  
 [게재확정 : 2009. 09. 04]